



2026 VISION

흔한 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여러분은 친구들이 모두 좋아하는 것이면 나도 좋아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친구들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 나도 그 사람을 멀리하고,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면 괜히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말과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병거와 호위병을 앞세우고 성문에 나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억울한 일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네 일이 옳고 바르다”고 말하며, 자신이 재판관이 되면 정의롭게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이 절하려 하면 붙들고 입을 맞추며 친근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진짜 목적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고 말씀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압살롬을 따라간 사람들 가운데 그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친구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거나,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의 말이라고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해”,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인기와 친구들의 시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내 선택을 결정하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분위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 배 순 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이 시간 너의 맘 속에 다 같 이

말 씬 봉 독 사무엘하 15:1~12절 다 같 이

설 교 누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설 교 자

말 씬 나 눔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이 시간 너의 맘속에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살롬처럼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세상의 분위기를 무조건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해주세요. 인기와 인정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압살롬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나요?
2.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면 어떤 상황인가요?